

말씀의 샘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요한복음 6:1~13>

오늘은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비교적 정황이 자세히 소개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주변에 세 사람의 특성이 간략히 나타나고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아이입니다. 주님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있다면 사실상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 기적의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과도 한번 견주어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빌립의 현실주의 신앙입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빈들이었고 식사시간도 한참을 지나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 하필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주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참 계산이 빠릅니다. 장정만 오천명이었다면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20,000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먹는 떡값을 계산하고 얼마가 모자란다는 현실적인 계산과 대안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빌립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능프로에서 '정충무놀이'라고 오차범위 내까지 장을 본 물품을 계산하고 식비를 계산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립의 현실적 고민과 똑똑한 계산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빌립아~ 하나님의 일은 너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현실로만 따지면 성경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비현실적입니다. 천지창조, 홍수,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막에서 공급받고, 동정녀에게서 메시야가 탄생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눈을 뢼느냐”** 입니다.

요한복음 9: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9: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어떻게”에 대한 답을 듣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어떻게”를 궁금해 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질문이 끝이 없고 불신앙도 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묻고, 또 다시 소경을 불러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소경은 그들의 반복적인 추궁에 반발하다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보여주시려고 12정탐군을 뽑아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보여주어 소망을 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저 덩치 좋고 신무기를 가진 야만 자손을 상대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다면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어떻게”에 집중하면 믿음이 절대 생기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만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집중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아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실 일입니다. 믿읍시다!

둘째, 안드레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요한복음 6: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었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도시락을 주님께 잘 전달해 놓고 말로 다 까먹습니다. 굳이 결과를 예측할 필요도, 부정적인 예견을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고 맡기면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은 빌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믿음 없는 똑똑한 현실주의자가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부정적인 말로 거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그다지 좋은 컴비네이션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현실이론을 뒷받침할 전문가가 있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겪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의 조언이 때로는 도움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인정하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랑과 선행을 복돋우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어린 아이의 기대와 작은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이의 이름, 집안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또한 배가 고팠을텐데 혼자 먹겠다고 그 도시락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내어놓았다는 것이 역사의 주 재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 많고, 계산 빠른 현실주의자보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진 도시락 하나, 작은 믿음의 헌신과 행동 하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기대하시고 작은 행동 하나를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위에 놀랍게 세워지고 견고해 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니엘이 구국공신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위대한 일을 실천한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사소한 문제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작은 결단과 실천을 크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말세의 있을 크고 비밀한 일을 그를 통해 보이시며 이루셨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머리로 이론으로 배우지 마시고, 100개의 지식보다 1개의 순수한 믿음의 실천을 해보십시오. 실속있는 순수한 믿음, 계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예상하지 않는 어린이와 같은 기대와 믿음의 행동을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7년 2월 5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2. 12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표기도 ----- 이 용희 셀장

헌금

성경봉독 ----- 마가복음 9:15~27 / 히브리서 11:6

말씀선포 ----- 이 강화 목사

믿으셔야 합니다.

축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전파와 영성의 생명적 성장을 위한
두란노 교회
DURANNO CHURCH

